

작품 내용

제 목	이름 없는 그림
내 용	학년이 된 뒤 우리 반에서는 환경 보호 포스터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포스터에 그림과 문장을 넣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표현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지만 북극곰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몇 번이나 그렸다가 지우니 종이가 까맣게 변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인터넷 검색창에 ‘귀여운 북극곰 그림’ 이라고 입력했다. 화면에는 예쁜 그림이 아주 많이 나왔다. 그중 얼음 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북극곰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 ‘이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그리면 괜찮겠지?’ 나는 태블릿 화면을 옆에 놓고 북극곰의 얼굴과 몸 모양을 거의 똑같이 따라 그렸다. 색깔도 비슷하게 칠했다. 완성된 포스터를 보니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다. 다음 날 친구들이 내 포스터를 보고 말했다. “우아, 북극곰 진짜 잘 그렸다!”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물었다. “이거 네가 생각해서 그린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응, 내가 그렸어.” 말을 하고 나니 마음 한쪽에 작은 돌맹이가 들어간 것처럼 답답했다. 분명히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나였지만, 북극곰의 표정과 자세를 생각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께서 몇 개의 포스터를 살펴보다가 말씀하셨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도 누군가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작품이에요.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그대로 따라 하면 작품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지켜 주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가 따라 그린 북극곰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그 그림을 처음 만든 사람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그렸을 것이다. 어떤 표정을 그릴지 오래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검색 몇 번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쉽게 가져왔다. 집에 돌아와 포스터를 한참 바라보았다. 잘 그린 북극곰이었지만 이제는 멋져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새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인터넷 그림을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모습을 그리기로 했다. 내가 새로 그린 북극곰은 처음 그림처럼 예쁘지 않았다. 머리는 너무 크고 다리는 짧았다. 얼음도 네모난 과자처럼 보였다. 그래도 나는 북극곰 옆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 주었다. 북극곰이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을 그리고, 녹아내린 얼음 끝에는 작은 새싹도 그렸다. 다시 만든 포스터를 학교에 가져가자 친구가 말했다. “전에 그린 것보다 조금 웃기지만, 이 그림이 더 너답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이번에는 누가 “네가 생각해서 그린 거야?” 라고 물어도

자신 있게 “응” 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며칠 뒤에는 반대로 속상한 일도 있었다. 내가 공책에 그려 놓은 강아지 그림을 다른 친구가 사진으로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이다. 그런데 그림 아래에 내 이름은 없었다. 친구들은 그림을 올린 아이가 직접 그린 줄 알고 칭찬했다.

별것 아닌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마음이 서운했다. 그때 인터넷 그림을 따라 그렸던 일이 떠올랐다.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 뒤로 나는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때 세 가지를 확인한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살펴보고, 만든 사람이나 출처를 적고, 가능하면 내 생각으로 직접 만들어 본다.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보여 주고 싶을 때도 먼저 허락을 받는다.

예전에는 저작권이 어른들이나 유명한 작가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짧은 글 한 줄, 서툰 그림 한 장에도 만든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 들어 있다.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법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이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해 주는 일이다. 내가 새로 그린 북극곰 그림 옆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림은 조금 서툴지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 했을 때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그림이기 때문이다.